

중소건설업체 평균 매출 13년새 42.4% 감소

중소건설업체의 경영여건이 악화되면서 대기업과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대한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등이 공동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1997년 54억원에서 2010년 31억원으로 42.4%나 감소했다.

반면 대형 건설사의 평균 매출액은 같은 기간 1,670억원에서 5,568억원으로 3.3배나 증가해 중소기업사와

대형 건설사 간 매출격차는 더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왔다.

중소건설업체가 건설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 비중도 2005년 48.8%에서 2010년에는 44.1%로 축소됐다.

건설사의 채산성도 나빠져 2010년 적자 건설사는 전체의 21.4%를 차지했으며 이 중 시공능력평가 8,000위권의 소형 업체는 55%가 적자를 기록했다.

하위윤기자 faw4939@kwnews.co.kr

강원선수단 '종합 9위' 목표 지킨다

제93회 전국체육대회 오늘 폐막



강원선수단이 제93회 전국체육대회 폐막을 하루 남기고 대량 득점몰이에 성공하며 목표등위인 종합 9위를 사실상 확정지었다.

도선수단은 16일 대구시내 등에서 열린 이번 체전 6일째, 육상과 테니스 양궁 펜싱 정구 등에서 금메달 6개를 비롯은 4개, 동 18개를 획득하며 총점 2만319점으로 전남을 제치고 종합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도체육회는 대회 폐막일 집계되는 축구와 핸드볼 럭비 레슬링 수구 등의 점수

대회 6일째 전복에 이어 10위

폐막일 무난히 순위 상승 전망

김도연·현서용 2관왕 강원육상

금 11개 등 메달 순위 종합 2위

가 포함되면 강원도는 이날 현재 9위인 전복을 따돌리고 무난히 9위에 올라설 것으로 전망했다.

대구스타디움에서 펼쳐진 육상에서는 강원도청 김도연과 상지여고 현서용이 여자일반부 1만m와 여고부 마라톤10km에서 나란히 금메달을 획득, 대회 2관왕에 등극했다.

강원도청 이세정이 여자일반부 3,

000m장애물에서 금메달을 더한 강원육상은 금메달 11개 은5개 동6개로 메달순위 종합 2위에 올랐다.

앞서 영월군청은 이종범(창단지기) 이연경(원반던지기) 이미영(포환던지기) 등 출전선수 3명 전원이 모두 금메달을 따내는 진기록을 세우며 강원육상의 효자로 떠올랐다. 강원체고는 양궁 남고부 단체전에서 이승윤 민태홍 박성철 한종혁이 출전, 223점을 명중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으며 이승윤은 대회 3관왕에 올랐다.

테니스 여자일반부에서는 강원도청 류미 김지영 김진희가 금메달을 따 대회 2연패에 성공했으며 여고부 개인전에서는 원주여고 이소라가 정

상에 올라 고교 1, 2, 3학년 3년 연속 우승의 금자탑을 쌓았다.

여자일반부 레슬링에서는 평창군청 허남주가 자유형 72kg급 결승에서 충남 배미경을 누르고 입단 2년 만에 금빛 굴리기를 선보였다.

또 횡성고는 남고부 정구 결승에서 전남 순천매산고를 3대0으로 꺾고 우승의 감격을 안았다.

대회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빅게임으로 남자일반부 축구 강릉시청이 부산교통공사를 상대로 금메달을 다루며 럭비도 도연고팀인 한국전력이 오후 2시35분 경산생활체육공원 럭비구장에서 대구 국군체육부대와 결승을 치른다. 대구=김보경기자